

에이스 사전에 '연패'란 없다



KIA 오늘부터 키움과 3연전... 돛구장 날씨 변수 없어
양현종, 삼성전 4이닝 8실점 뒤 심기일전
지난해 고척돔 무승·팀, 키움전 5승 10패 열세 지울 기회

KIA 타이거즈 '에이스' 양현종이 명예회복을 노리며 고척 마운드에 선다.

KIA는 26일부터 고척스카이돔에서 키움 히어로즈와 주말 3연전을 벌인다. 주중 사직 원정에서 '장맛비'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했던 KIA지만 이번 주말에는 날씨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돛구장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만큼 다른 변수 생각 없이 준비한 전력을 쏟아부어 승부를 해야 한다.

누구보다 비장한 각오로 고척을 찾는 이가 있다. 앞선 등판에서 5회를 버티지 못했던 양현종이다.

양현종에게는 자존심을 건 등판이다. 양현종은 지난 21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구자욱과 최영진에게 잇달아 홈런을 허용하는 등 4이닝 8실점(7자책점)으로 일찍 등판을 끝냈다.

직구의 힘, 체인지업의 매서움이 떨어지면서 고전한 양현종은 이날 부진으로 올 시즌 평균자책점

4.88을 기록하고 있다. 전적은 5승 3패. 앞선 부진을 만회하고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양현종은 지난 시즌 고척에서 좋은 기억을 남기지 못했다.

양현종은 2019시즌 고척에서 두 경기에 나와 12.1이닝을 소화하면서 5.11의 평균자책점으로 승 없이 1패만 기록했다.

4월 26일 등판에서는 4.1이닝 8피안타 5볼넷 5탈삼진 8실점(7자책점)을 기록하며, 5회를 넘기지 못하고 강판됐다.

8월 22일 고척 두 번째 등판에서는 8이닝 5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의 완벽투를 선보였지만 끝내 웃지는 못했다.

양현종이 5-0으로 앞선 8회 마운드에서 물러난

뒤 9회 볼펜이 가동됐다. 하지만 9회 마운드를 넘겨받은 하준영이 볼넷과 안타를 내준 뒤 강판됐고, 박준표와 문경찬까지 급히 출격했지만 송성문의 동점 스리런이 나오면서 승부가 5-5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경기는 연장 12회 승부 끝에 5-5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양현종은 이번 등판을 통해서 지난해 고척에서의 악몽과 함께 키움과의 열세도 지워야 한다.

지난 시즌 KIA는 키움에 5승 10패로 열세를 기록했다. 올 시즌도 개막전부터 난타를 당하면서 개막 시리즈에서 1승 2패, 무장시리즈를 남겼다.

올 시즌 첫 등판에서도 키움과의 악연이 더해졌다. 양현종은 키움과의 개막전 선발로 나서 3이닝 4

실점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 경기와 함께 앞선 등판에서도 5회를 지키지 못하고 물러난 만큼 양현종이 적지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줘야 한다.

잘 버텨왔던 마무리 문경찬의 불륜세이브와 장맛비로 인해 KIA는 어수선한 사직 원정을 치렀다.

25일 더블헤더가 예정되면서 일찍부터 경기장에서 대기했던 KIA는 더블헤더 1차전에 이어 2차전까지 비로 열리지 못하면서 허탈하게 짐을 꾸렸다. 선발진 컨디션 조절이라는 속제가 남았지만 볼펜 재정보 시간은 벌었다.

비로 쉬어 간 KIA가 양현종을 중심으로 한 마운드의 힘으로 고척 원정에서 기본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



"더위야 비켜~" 25일 경기 포천힐스CC에서 열린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20 1라운드 13번 홀에서 배선우가 세컨드샷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구 유망주 양재민, 한국 첫 일본 진출

프로농구 B리그 신슈 브레이브 워리어스팀... 1부리그 18개팀

양재민(21·사진)이 한국 국적 선수 최초로 일본프로농구 B리그에 진출했다.

B리그 신슈 브레이브 워리어스는 25일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양재민 선수와 2020-2021 시즌 계약을 마쳤다"며 "이는 아시아 쿼터제로 B리그에 진출한 첫 한국 국적 선수"라고 발표했다.

B리그는 2016년 창설된 일본프로농구리그로 1, 2부를 함께 운영한다. 양재민이 뛰는 1부에만 18개 팀이 있다.

키 201cm의 포워드 양재민은 경북고 출신으로 연세대에 다니다가 미국 캔자스주의 네오소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지난 시즌까지 활약했다.

16세부터 19세까지 연령대별 국가대표를 지냈

으며 2017년 미국프로농구(NBA) 글로벌 캠프에도 참가했던 선수다.

양재민은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에서 뛴 기회를 준 신슈 구단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다양한 나라에서 선수로 뛰는 것은 앞으로 농구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양재민은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양원준 전 사무총장의 차남이고,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에서 뛰는 양재혁(23)의 동생이다.

KBL은 지난달 B리그와 아시아 쿼터제 도입에 합의하고 양국 선수 교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주 DB가 일본 국적의 나카무라 다이지와 지난주 계약한 바 있다. /연합뉴스



세계 4위 켈카 '코로나 기권'

PGA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캐디 양성 판정에 불참 선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기권 사례가 속출했다.

남자 골프 세계 랭킹 4위 브룩스 켈카(30·미국)는 25일(한국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크롬웰에서 개막하는 PGA 투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을 앞두고 대회 불참을 선언했다.

켈카가 직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캐디인 리키 엘리엇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켈카가 이번 대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켈카는 "다른 선수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앞으로 2주간 대회가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켈카의 캐디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전날 그레임 맥다웰(북아일랜드)과 함께 연습 라운드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켈카에 앞서 맥다웰의 캐디 켈 콤보이가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맥다웰 역시 이번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

켈카와 맥다웰 외에 지난주 PGA 투어 RBC 헤리티지에서 우승한 웨브 심프슨(미국)도 이번 대회에 불참한다.

심프슨은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켈카의 동생 제이스 켈카(미국)는 이번 대회

월요 예선을 거쳐 출전권을 따냈으나 역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가깝게 지낸 사례가 있었다며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전날 캐머런 챔프(미국)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 불참하게 됐고 이후 선수의 코로나19 양성 사례는 아니지만 켈카 형제와 맥다웰, 심프슨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불참하면서 이번 대회 코로나19 관련 불참 선수는 총 5명이 됐다.

이에 앞서 지난주 RBC 헤리티지 1라운드가 끝난 뒤에는 닉 워트니(미국)가 PGA 투어 선수로는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PGA 투어는 3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1라운드 직후 코로나19로 인해 시즌 일정 중단을 선언했고, 약 3개월이 지난 6월 중순 찰스 슈와브 챔피언십으로 시즌을 재개했다. 찰스 슈와브 챔피언십과 RBC 헤리티지에 이어 이번 주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은 일정 재개 후 세 번째 대회다. /연합뉴스